

생산일 : 2000.3.15(수)

## 報道參考資料

題 目 : 재경부장관 치사

### 主要内容

□ 불임자료는 2000.3.15(수) 10:00 매일경제신문본사에서 개최된  
매경금융상품대상 시상식에서 발표된 재경부장관의 치사  
입니다.

<참고> 재경부장관 치사

報道資料 生産課 : 金融政策局 保險制度課 (☎ 500-5360)

財政經濟部 公報官

第5回 每經金融商品大賞 施賞式

# 致 辭

2000.3.15

財政經濟部長官

李 憲 宰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경제신문 장대환 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

'96년 제정된 후 날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每經  
金融商品大賞」의 다섯 번째 施賞式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優秀한 金融商品을 開發하여  
受賞의 榮光을 차지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祝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對內外 環境속에서도  
모든 국민들이 합심노력한 결과, 10%가 넘는 성장을, 1%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물가상승률, 250억불수준의 경상수지흑자를  
달성함으로써 經濟回復을 앞당기고 先進經濟로 다시  
跳躍할 수 있는 基盤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金融部門에서는 뼈를 깎는 構造調整을 통해  
金融機關의 健全性を 提高하였으며, 대우문제와 투신사  
환대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金融市場을  
安定시키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金利・換率・株價 등 금융시장의 주요변수들은 대체로 安定勢를 되찾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金融機關에 종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피나는 努力과 적극적인 協調의 結果라고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새천년을 맞이한 오늘의 金融環境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컴퓨터・인터넷등 情報技術의 發展에 따른 디지털 革命과 金融部門의 兼業化・大型化趨勢는 기존 금융산업에 패러다임의 變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금융산업이 經濟成長을 뒷받침하기 위한 産業政策의 한 手段이었다면, 21세기의 金融産業은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主要 戰略産業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디지털경제와 금융점업화·대형화추세에  
금융기관이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政府는 다음과  
같이 關聯制度를 整備할 계획입니다.

먼저 電子金融을 통한 金融革新을 유도하기 위해  
사이버금융기관의 설립요건·감독기준 등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보안대책과 거래사고시 분쟁조정방안 등  
사이버금융확산에 따른 補完裝置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자생적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金融機關의 兼業範圍를 확대하고  
金融持株會社制度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권별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를 구분하여  
비핵심업무의 경우 兼業을 段階的으로 허용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감독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債券市場과 제3시장을 활성화하여 資本市場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物價安定을 통해 低金利基調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추세가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투신문제 해결과 물가안정기조 정착에 따라 금리안정을 저해해온 摩擦的 요인과 構造的 要因은 점차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최근의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최근의 금리는 아직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金利安定은 금융인의 몫입니다. 금리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금융관계자들께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을 통하여 과거 금융기관 부실화의 주된 원인이던 外形爲主의 成長戰略과 責任經營意識의 不在와 같은 舊習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國民의 政府」가 출범한 이후에는 정경유착이나 외부압력에 의한 불법부당대출 등 官治金融에 따라 금융질서가 왜곡되는 폐해는 사라지고 公正한 信用評價에 의한 대출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가 금융기관의 인사에 개입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관행은 절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현재 우리 금융산업이 처해있는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지구촌화와 인터넷혁명 등 시대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직 우리 금융산업이 克服해야 할 挑戰이 많다고 봅니다.

우선 구조조정을 통해 튼튼해진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향후 금융환경의 변화 즉 금융겸업화·대형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組織의 柔軟性を 더욱 높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우수한 金融專門人力을 養成하고 先進金融技法을  
도입·소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상품개발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상상품에는 消費者의 多様な 需要를 잘 반영  
하면서 발전하는 情報技術을 접목시킨 아이디어 상품이  
많은 것을 보고, 우리 금융기관들이 環境變化에 발빠르게  
적응해가고 있는 것 같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市場의 信賴를 얻기 위해서는  
기관자체의 健全性도 중요하지만, 시장상황과 고객수요에  
잘 부합하는 히트상품을 개발하여 會社價値를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 금융기관들이 高金利를 통한 受信誘致競爭과 방만한 자산운용으로 몸집불리기에 치중할 경우 큰 禍를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금융시장에서 건전한 Player로서 제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매일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매경금융상품대상」은 금융기관이 顧客需要에 副應하고 서비스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競爭力을 提高시키는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늘 榮譽의 受賞者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매일경제신문장대환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